

## 대학생의 취업불안, 우울과 자살생각과의 관계

### The Relationships among Job-Seeking Anxiety,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of University students

김은주\*, 최경원\*\*

상지대학교\*, 한북대학교\*\*

Kim, Eun Joo\*, Choi, Kyung Won\*\*

Sangji Univ. \*, Hanbuk Univ. \*\*

#### 요약

대학생의 취업불안, 우울과 자살생각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서술적 조사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결과 대학생들의 취업불안은 중간이상이었으며 취업불안을 유발하는 원인에 대한 불안이 높았다. 또한 우울은 경정도의 우울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자살생각도 중간정도였다. 대학생들의 취업불안은 우울 및 자살과 중정도 이상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대해 취업불안과 우울은 21.8%의 설명력을 보였다.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한국에서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9년 기준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는 인구 10만명 당 28.4명이었으며 OECD 평균 11.3명보다 2배 이상의 수였다. 이 중에서도 10대~30대까지의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는 전체 사망원인 중 가장 많았다(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ystem, 2010). 이러한 젊은 청년층의 자살률 증가는 경제인구의 감소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계속되는 취업 실패와 경제적 파탄을 비판하여 자살을 선택하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으며 자살 충동·시도 원인은 ‘경제문제(등록금 포함)’가 57%로 1위를 차지하고, ‘취업문제’가 30%이었다(The Kyunghyang shinmun, 2012. 9. 28).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취업불안, 우울 그리고 자살생각에 대해 파악해보고자 한다. 또한 각 개념간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이후 대학생을 위한 취업 및 진로프로그램에서 취업불안이나 우울을 고려한 차별화된 진로프로그램개발은 물론 취업 및 진로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살을 고려하는 학생들을 조기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정책에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의 취업불안, 우울과 자살생각을 파악하고 취업불안, 우울과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학생들의 취업불안, 우울, 자살생각 정도를 확인한다. 두 번째로 대학생들의 취업불안과 우울, 자살생각과의 관계를 확인한다. 셋째, 대학생들의 취업불안,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는 대학생의 취업불안, 우울과 자살생각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자와 자료수집기간

본 연구는 지방에 소재한 2개 대학교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1년 4월부터 2011년 6월까지이었으며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 기입하는 조사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 3. 연구도구

#### 3.1 취업불안

대학생들의 취업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Cho(2008)이 개발한 취업불안 척도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3개의 하위 요인 즉 취업불안 상태(10문항), 취업불안 유발상황(11문항), 취업불안 유발원인(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8문항이며 Likert 5점 척도이다.

#### 3.2 우울 검사

Kim(1985)이 번역한 Beck의 우울증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 BDI)를 사용하였다. BDI는 Beck(1967)에 의해 만들어진 자기 보고식 질문지이다.

#### 3.3 자살생각

각 대학생의 자살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척도는 Reynolds(1988)의 자살생각척도로 현재의 자살생각의 수준을 측정하는 30문항으로 이루어진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 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윈도우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Ⅲ. 연구결과

#### 1. 대학생의 취업불안, 우울과 자살생각

대학생의 취업불안은 평균 75.6(±22.4)점이었으며 대학생들의 우울 최저치는 0점이었으며 최고점은 41점이었으며 평균은 10.17(±8.0)점이었다. 대학생의 자살생각은 최저점 14.0점이었으며 최고점은 82.0점이었고 평균 22.4(±10.2)점이었다.

Table 1. The Job-Seeking Anxiety,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of Subjects

|                     | Item                               | Min  | Max  | Mean | SD   |
|---------------------|------------------------------------|------|------|------|------|
| Job-Seeking anxiety | Psychological & physical condition | 1.0  | 4.7  | 2.4  | .8   |
|                     | Situation of arousing              | 1.0  | 5.0  | 2.9  | .8   |
|                     | Factor of arousing                 | 1.0  | 5.0  | 3.3  | .9   |
|                     | Total                              | 27   | 132  | 75.6 | 22.4 |
| Depression          | Cognitive depression               | 0.0  | 20.0 | 4.0  | 3.8  |
|                     | Emotional depression               | 0.0  | 15.0 | 3.7  | 3.3  |
|                     | Physical depression                | 0.0  | 13.0 | 2.5  | 2.1  |
|                     | Total                              | 0.0  | 41.0 | 10.2 | 8.0  |
|                     | Suicidal ideation                  | 14.0 | 82.0 | 22.4 | 10.2 |

#### 2. 취업불안, 우울과 자살생각과의 관계

대학생의 취업불안, 우울과 자살생각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취업불안상태는 우울과 자살생각과의 중정도이상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2. The Job-Seeking Anxiety,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of Subjects

|                   |                | Job-seeking anxiety                |                       |                    |        | Suicidal Ideation |
|-------------------|----------------|------------------------------------|-----------------------|--------------------|--------|-------------------|
|                   |                | Psychological & physical condition | Situation of arousing | Factor of arousing | Total  |                   |
| Depression        | Cognitive r(p) | .456**                             | .423**                | .448**             | .487** | .514**            |
|                   | Emotional r(p) | .401**                             | .385**                | .404**             | .435** | .423*             |
|                   | Physical r(p)  | .217**                             | .404**                | .281**             | .264** | .168*             |
|                   | Total r(p)     | .437**                             | .415**                | .458**             | .478** | .462*             |
| Suicidal Ideation | r(p)           | .293**                             | .237**                | .273**             | .289** | 1                 |

#### 3. 대학생의 취업불안,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의 취업불안,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취업불안과 우울은 자살생각에 21.8%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The Effects of Job-Seeking Anxiety and Depression on the Suicidal Ideation of Subjects(n=317)

|                     | R <sup>2</sup> | B    | Standard Error | $\beta$ | t     | p    |
|---------------------|----------------|------|----------------|---------|-------|------|
| Job-Seeking Anxiety | .077           | .129 | .028           | .277    | 4.846 | .000 |
| Depression          | .218           | .549 | .077           | .428    | 7.132 | .000 |

### IV. 논의 및 제언

대학생의 취업불안과 허부영역에 대한 영향요인들에 대한 각각적인 연구를 제안한다. 현대를 살아가는 대학생들의 가장 심각한 고민 중 하나인 취업과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지도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대학생의 취업과 진로와 관련된 정신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각 대학의 취업센터에나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진로 및 취업프로그램은 직업탐색이나 영어교육 및 전공능력함양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안, 우울과 같은 정신심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담심리적인 접근을 통합해야 할 것이다.

#### ■ 참고 문헌 ■

- [1] Jung, E. S., No, A. Y. "A study on relationship employment stress, depression, self-esteem and physical health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Student Guidance, 33, pp. 85-10, 2001.
- [2] Kim, J. J. "An analysis of variables related to university student's suicidal ideation -Regarding effect of suicidal attempt experience", Mental Health, Psychosocial Problems, Mental Health & Social Work, 32, pp. 413-436, 2009.
- [2] Barrios, L. C., Everett, S. A., Simon, T. R., & Brener, N. C. "Suicide ideation among U.S.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48(5), pp. 229-233, 2000.